

# 전주시-군부대, 자연재난에서 시민 보호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육군35사단 전주완주부대, 재난협력체계 구축 협정서 체결

전주시가 태풍과 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부대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는 태풍·호우·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육군 제35사단 전주·완주대대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

를 체결했다.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35사단 전주·완주대대간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 △전주·완주대대가 전주시로부터 긴급한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이다. 또, 전주·완주대대는

재난현장에서의 군 지원활동 시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정 체결로 전주·완주대대에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원활한 복구지원이 가능해지고, 전주시역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완주대대는 그동안 호우피해 등 재난 발생시 전주시의 요청에 따라 재난복구를 위한 군부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써왔다.

김철현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전주시와 군부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호우나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시민안전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대자인 병원, 일자리 으뜸기업

### 2012년 59명서 현재 1050여명 근무... 고용증가율 1700%

대자인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대통령 명의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이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과 생활 균형을 모범적 실천 등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정부가 인정·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대자인병원은 주말은 물론 공휴일에도 전문의가 외래 정상 진료하는 365병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재를 적극 채용하며 전북지역 고용 창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개원 당시 근로자 59명에서 시작한 대자인병원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나타내며 현재 고용인원 1050여 명으로 무려 1700%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9로 모두 힘든 시기에 도 전년 동월 대비 121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자인병원은 일자리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부문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PC-Off 프로그램 도입 △자등육아 휴직제 △임신 기간 중 하루 2시간 임금 감소 없는 근로 시간 단축 △내일채움공제 △고령자 고용 창출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공공근로복지기금 운영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대자인병원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병관 병원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물론 인재를 육성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환자와 직원 더불어 지역사회 모두가 자랑할 만한 병원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

# 전주시, '청년심포, 프로젝트'로 미취업 청년 응원한다

### 23일까지 참여자 60명 모집... 심리검사·집단상담·활동수당 150만 원 등 지원... 청년 재도약 도와

전주시가 구직 실패로 인한 불안과 무기력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와 활동비를 지원한다.

시는 23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2기 청년심포, 프로젝트'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

'청년심포, 프로젝트'는 전문 심리상담기관을 통한 개인별 심리검사와 그룹별 집단상담을 제공하고, 구직활동 비용과 생활비로 인한 고민을 풀어줄 수 있도록 3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원되는 전주시 대표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 청년들은 또래들과 하루를 같이 보내며 공감하는 힐링캠프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청년심포에 세이 작성 심리상담 전후 정신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심리검사 등을 통해 취업을 위한 재도약과 도약을 준비하게 된다.

이번 2기 청년들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전주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단 △재학생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청년심포 기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6층)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eun43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까지 최종 참가대상자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선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심포, 프로젝트는 구직도전과 실패, 열악한 노동으로 인한 소진과 탈진 상처·우울증 자존감 상실 악순환에서 청년을 탈피시키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2기 청년심포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공노 남원시지부, 하반기 인사규탄 채택 조합원 총투표 실시

### 긴급 대의원회의서 총투표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지부장 이승일)는 지난 8일 하반기 인사와 관련해 조합원 총투표를 결의하는 긴급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2022년 하반기 인사규탄 결의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상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합원 총투표 실시를 결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시민에게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으나, 민선 8기 처음 단행한 하반기 인사를 바라보는 남원시 공직 사회의 평가는 냉담하다.

이에 남원시지부는 하반기 인사에 대해 1,000여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원칙 없는 독단인사로 규정하고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 인사규탄 결의 채택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하고 다음



주 중으로 하반기 인사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일 남원시지부장은 "기업이 성과와 효율을 강조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을 강조한다. 즉 시

민의 안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어떤 성과와 효율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의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인사는 시장의 독단에 의한 인사로

조직에 큰 혼란과 무력감을 주어 일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든 인사로 1천여 조합원과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 건강한 가족 만들기 '맞손'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업무협약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유현숙)는 지난 9일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신윤호)와 건강한 가족 만들기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조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가

족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사업과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며 가족이 지닌 잠재력을 개발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문제 예방 및 효과적 해결에 기여해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